우암학원 창학 71주년
광주의 명문대학교 광주·전남 취업률 1위!!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光州日報
70 SINCE 1952

www.tphtoyota.com
BEYOND POSSIBLE. BEYOND PLEASURE.
SMART HYBRID 4th GENERATION PRIUS
TOYOTA
광주전시장 062-371-8383 | 전주전시장 063-273-3222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1744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3월 26일 2022년 4월 26일 화요일

이용섭이냐 강기정이냐… 민주 광주시장 후보 오늘 결정

4년 만의 리턴매치 막판까지 치열한 접전 … 오후 9시 후보 발표
첫 날 권리당원 투표율 전국 최고…여론조사 시민선택 관심 집중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이 막바지까지 뜨겁다.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경선은 26일을 마지막으로, 밤 9시께면 최종 후보가 확정돼 발표될 예정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4년 만에 리턴매치를 벌이고 있는 이용섭 예비후보와 강기정 예비후보가 경선 막판까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광주가 민주당의 심장부인 만큼 '민주당 경선 승리'가 사실상 당선까지 '9부 능선'을 넘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양 후보 간 대결은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두 후보는 25일에도 지지세력 결집을 통한 세 확산에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경선 기간 중 권리당원 투표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른 가운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일반 여론조사'가 당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조직 대결'과 '당심'(黨心) 못지 않게 '시민의 선택'을 통해 권리당원 투표에서의 지지율 차이를 충분히 극복하거나 격차를 더욱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용섭·강기정 예비후보는 경선 마감 하루를 남긴 25일에도 정책 경쟁을 펼치는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전에 총력을 기울였다.

◇**시민의 선택은 누구**?=지난 23일 온라인 투표로 시작된 이번 경선은 26일 투표를 하지 않은 모바일 소유 권리당원이나 휴대전화가 없는 권리당원이 정해진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투표하는 이른바 '인바운드'방식으로 당원 권리 행사를 끝으로 최종 승자를 뽑게 된다.

특히 첫 날이었던 지난 23일 민주당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투표율이 전국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양 측의 당심 잡기 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50%와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은 안심번호를 통한 ARS(자동응답시스템)선거인단 투표 50%로 진행된다. 첫 날 온라인 투표결과 권리당원 9만2966명 중 3만891명(33.23%)이 투표했다. 이는 다른 지역 광역단체장 경선에 비해 가장 높은 수치다. 4년 전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경선 투표율은 42%대였다.

이에 따라 '시민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권리당원의 투표에서의 승리도 중요하지만 시민 여론조사에서 충분히 '역전'과 '승세 굳히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가령 3만명의 권리당원이 투표를 했고, 시민여론조사에는 3000명이 응답을 했다고 가정하면, 시민 1명의 목소리가 권리당원 10명의 선택과 맞먹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시민여론조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각 후보 진영은 각기 다른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용섭 예비후보 측은 "현직 시장 프리미엄 덕분에 인지도가 높아 시민여론조사에서 압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강기정 예비후보 측은 "당심이 이미 강 후보에게 있고, 시민여론조사도 민주당 적극 지지층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대세에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막판 공약 경쟁도 치열**=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에서 시민의 선택이 중요해지면서 25일 이용섭·강기정 예비후보는 정책·공약 경쟁에 집중했다.

이용섭 예비후보는 이날 "최첨단 스마트 의료인프라를 구축해 심장질환, 암, 치매 등에 특화된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노후화된 전남대병원을 최첨단 인공지능 스마트병원으로 재건립해 지역 내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서남권 원자력의학원을 유치하고 광주의료원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호남권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국립치의학연구원·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유치 ▲치매 빅데이터센터 설립 등을 약속했다.

또 강기정 예비후보도 이날 "일과 생활, 가정이 균형을 지향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공정한 일터를 만들겠다"며 양성평등 공약을 발표했다.

강 후보는 현재 중소사업장의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가 대상인 '10시 출근 장려제도'를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과 지역 기업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양성평등을 위해 ▲여성인권보호 체계 강화 ▲성 인지 감수성 확산 ▲임산부 꾸러미 제도 도입 ▲여성 특화 일자리 창출 등을 약속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지방선거 누가뛰나 - 곡성·구례·진도·완도 ▶5면
굿모닝 예향 - 광주 한바퀴·전남 갯벌 ▶18·19면
타이거즈 전망대 - kt·삼성 상대 승리 사냥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되찾은 일상 … 즐거운 노인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광주시 남구 노대동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운영이 가능해진 첫날인 25일. 2년 2개월만에 개장한 탁구장을 찾아 이용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김영록 "전남 행복시대 새롭게 열겠다"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 재선 도전 공식 선언

김영록(사진) 전남지사가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후보로 확정된 김 지사는 25일 전남도의회에서 "도민의 변함없는 신뢰와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새롭게 열겠다"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지사는 "전남이 이제야 비로소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며 "지난 4년간 흘렸던 땀과 열정을 모아 도민 한 분 한 분께 힘이 되는 든든한 도지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4년이 전남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전남발전의 기반을 구축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4년은 '환태평양 시대, 신해양·친환경·문화관광 수도 전남' 건설을 통해 전남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서 웅비하는 도약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남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남해안·남부권 초광역 메가시티와 '전남·광주 경제공동체' 건설 추진 ▲전남의 100년을 책임질 미래 성장동력 확보 ▲기후변화에 대응한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선도 ▲전남의 자연과 문화의 융복합화로 전남관광 1억명 시대, 해외관광 300만명 시대 개막 ▲전남 농수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생명산업 육성 ▲도민 제일주의에 기반한 행복 전남 실현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시대 선도 등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선거 이후 바뀐 정치지형 환경과 호남의 시대적 소명과 역할을 언급하면서 "지역 젊은 인재들을 이끌 수 있는 아카데미 같은 정책도 추진해보고 싶다"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님이 꿈꿨던 더불어 잘 사는 세상, 누구나 공감하는 정의로운 세상, 함께 손잡고 가는 대동세상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7일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인수위, 국정과제 110개 마련

6대 국정목표 '지방시대' 포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철학과 미래 비전이 담길 '국정과제' 선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5일 "6대 국정목표 아래 110개 국정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수위 신용현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사무실 브리핑에서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국정과제 3차 선정 보고가 있었다"며 이런 내용을 설명했다.

국정과제 3차 선정안은 '국가비전' 아래 6대 '국정목표'를 설정하고 그 아래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를 배치했으며, 이를 구체화한 '국정과제' 110개를 정리한 4단 구조로 구성됐다. 국정 운영 원칙은 '공정·상식·실용'이 거론된다.

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다. 국정과제는 다음 달 3일 전체회의에서 윤 당선인에 보고된 뒤 안철수 위원장이 직접 대국민 발표를 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